

쿠레레(Currere) 방법을 활용한 한국의 실생활문화 교육방안

정 호 진 · 박 성 실
(계명대학교)

1. 머리말

최근 들어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습 대상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 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언어교육을 통한 문화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화교육은 주로 문화체험과 언어교육 시 본문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문화를 교육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 문화교육을 위한 교재들이 출판되고 있다(박경수 2010; 순천향대학교한국어교육원 2008; 이선이 2007; 전미순 2008; 조항록 2008).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화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 방법이나 교육과정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Pinar(1975)가 제안하고, 정성아(2006)가 구체화한 쿠레레 방법을 활용하여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학습자들에게 실생활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쿠레레 방법은 학습자의 경험을 중시하므로

비교문화적 관점 또는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교육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단순히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지식을 학습자의 삶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쿠레레 방법의 교수-학습 과정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자.

2. 쿠레레 방법에서의 교수-학습 과정

쿠레레는 교육 과정을 커리큘럼(curriculum)이라는 명사형이 아닌 라틴어의 동사형인 ‘쿠레레(currere)’로 보아야한다는 관점에서 W. Pinar와 그의 제자인 M. Grumet에 의해 제안되었다(Pinar 1974&1975; Grumet 1975). 쿠레레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교육적 경험을 중시하여 학습자 개인의 전기적 상황을 분석 자료로 삼는다. 그리고 학습자 개인의 전기적 상황은 자서전(autobiography)적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서전적 방법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교육적 경험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학습자 개인의 경험에 대한 분석 과정 중에 학습자의 의식이 변화되고 나아가 행동의 변화까지 연결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쿠레레 방법이란 자서전적 방법으로 학습자 개인의 전기적 상황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생각과 행동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밝혀냄으로써 스스로 교육과정의 지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쿠레레는 어떠한 지식을 배워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하는 분야에서 실험연구가 이루어졌다. Doerr(2002)는 Pinar가 제시한 쿠레레 방법을 생태 교육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연구하였다. 학생들의 삶의 경험과 이 경험들의 관계를 현상학적으로 살펴봄으로 쿠레레의 교육적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그는 미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자서전(The Environmental Autobiography)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이 연구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에서 환경을 직접 ‘지키는 것’, 더 나아가 ‘환경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환경에 관한 지식을 배워 단순히 그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운 지식을 자신의 삶과 연계하였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쿠레레에 관한 연구가 적지 않았다(김억환 1995; 김영천&허창수 2004; 박순경 2001; 이혼정 2002). 또한 실천을 위한 학문 분야에서도 몇 편의 연구가 있었는데 정성아(2006)와 정성아&김대현(2007)이 도덕과 수업에 쿠레레를 적용하였고, 최권진(2008)이 한국어교육에 적용하였다. 최권진은 쿠레레 방법을 적용하여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를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쿠레레 방법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과교육에 적용이 되었다면, 최권진은 처음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쿠레레 방법을 적용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쿠레레 방법을 한국문화교육이 아닌 실용한국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즉, 한국어 수업의 일부로 적용하여 보았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쿠레레 방법이 학습자 중심 교육과 과정 중심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과 학습자의 모국문화와 목표어가 사용되는 환경의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문화를 비교문화적 관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성아(2006)는 도덕과 수업을 위해 쿠레레 방법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교수·학습의 원리와 과정,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성아가 제안한 쿠레레 방법의 교수·학습 모형을 기본 틀로 삼아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실생활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쿠레레 방법을 적용한 교수-학습 단계

Pinar(1975)는 ‘The Method of Currere’에서 쿠레레 방법을 회귀, 전진, 분석, 종합 등 네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회귀의 단계는 현재에서 과거로 이동하여 과거의 경험을 관찰하는 것이다. 즉, 과거의 경험을 현재화하는 단계이다.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들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관찰을 통해 기록된 개인의 자서전은 학습 자료가 된다. 따라서 과거의 삶이나 경험이 기본 자료가 된다(김영천 역, 200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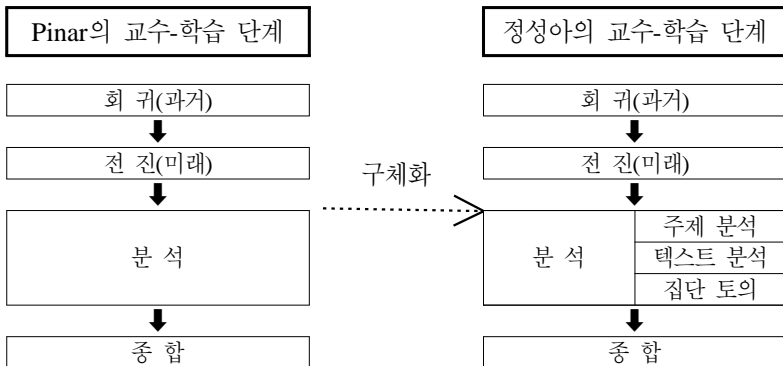
두 번째 단계인 전진의 단계는 현재에서 미래로 이동하는 단계이다. 일어나

지 않은 사건, 아직 현재가 되지 않은 것들에 관한 것으로 미래도 현재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주제와 연관 지워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 내일, 다음 주, 혹은 몇 달 후, 삼 년 후 등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투영시키는 자유연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의 단계는 앞의 두 단계에서 과거와 미래를 통하여 자유 연상적으로 회상하고 기록한 것들에 대해 비평적으로 반성하는 단계이다. Pinar(1975)는 현재로부터 자유롭게 위해서는 현재를 과거와 미래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과거, 현재, 미래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관계는 무엇인지, 과거 안에서 미래와 현재는 어떠한지, 미래에서의 과거는 어떠한지, 과거와 미래 안에서 현재는 어떠한지 등과 같은 질문을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종합의 단계는 반성적 사고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Pinar(1975)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모아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것 자체에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성아(2006)는 쿠레레 방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쿠레레 단계가 지니는 본래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교수-학습의 과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Pinar가 제시한 쿠레레 방법의 단계와 정성아가 수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교수-학습의 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쿠레레 방법의 교수 학습 단계

Pinar의 쿠레레 방법과 정성아가 구체화한 쿠레레 방법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른 점은 분석단계이다. 다시 말해, 정성아는 분석의 단계를 주제 분석과 텍스트 분석, 집단 토의로 세분화했다. 주제 분석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서 중심 주제를 찾아 각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 다시 글쓰기를 함으로써 회귀와 전진단계에서 적어 놓았던 경험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쓰는 단계이다. 텍스트 분석의 단계에서는 문학작품을 분석용 텍스트로 활용할 수도 있고, 기존의 교과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인 집단 토의 단계에서는 나와 타인이 경험을 공유하는 단계이다. 즉,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글쓰기를 하고 이를 분석한 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단계이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실생활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쿠레레 방법의 교수-학습의 원리와 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2) 쿠레레 방법에 기초한 교수-학습의 원리와 전략

정성아(2006)는 쿠레레 방법을 도덕과 수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쿠레레 방법에서의 ‘교수’와 ‘학습’의 의미를 연구한 후 이에 기초하여 교수-학습의 원리를 다음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개별성의 원리이다. 학습자 개개인의 경험이 가지는 개별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쿠레레 방법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점이다.

둘째는 지식 구성의 원리이다. 쿠레레 방법에서 지식은 인식주체와 인식대상 간의 끊임없는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지식은 교사에 의해 미리 준비되고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각자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쿠레레 방법의 교수-학습 과정은 교육적 경험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자신이 인식의 주체로서 인식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교육적 경험을 개념화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원리이다. 쿠레레 방법은 현재의 자신의 교육적 경험을 분석해 가는 과정으로 이는 곧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을 이해

하는 과정이다.

넷째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원리이다. 쿠레레 방법의 교수-학습 과정은 자신의 전기적 삶을 자유 연상에 의해 충분히 드러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기 주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은 학습공동체의 원리이다. 학습은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때 더욱 촉진될 수 있으며, 서로 동료로서 학습공동체를 형성할 때 더욱 촉진된다는 점과 관련된다. 자서전을 통해서 학습자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과정은 자신의 마음을 여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비밀스럽거나 부끄러운 경험들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의 다섯 가지의 교수-학습 원리를 제시한 후 정성아(2006)는 다음에 있는 다섯 가지의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자서전적 글쓰기’이다. 쿠레레 방법이 개인의 교육적 경험이 바탕이 된 자서전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쿠레레 방법의 전 단계에 걸쳐 적용되는 주된 교수- 학습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집단 토의하기’이다. 분석의 단계에서 주로 적용되는 전략으로 자신의 교육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타인의 교육적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 전략은 ‘현상학적 질문하기’이다. 쿠레레 방법의 교수-학습 과정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서 당연시 되었던 무의식적 가정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속에서 참다운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현상학적 태도가 요구된다. 그래서 이는 교수전략인 동시에 학습전략이기도 하며 쿠레레 방법의 전 단계에 적용되는 전략이다.

네 번째 전략은 ‘해석학적 읽기’이다. 쿠레레 방법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교육적 경험을 분석할 때 경험이 가지는 의미와 그 의미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를 상호작용적인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학적 태도가 요구된다. 이는 분석 단계에서 적용되는 전략으로 자신의 자서전과 다른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습 전략

이다.

다섯 번째 전략은 ‘개별화 교수전략’이다. 쿠레레 방법에서 교수-학습 과정의 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교수전략이다. 이는 개별성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원리와 관련된 것으로 학습자 개개인이 자신의 내면적 경험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교수 전략을 말한다.

쿠레레 방법의 교수-학습의 원리와 전략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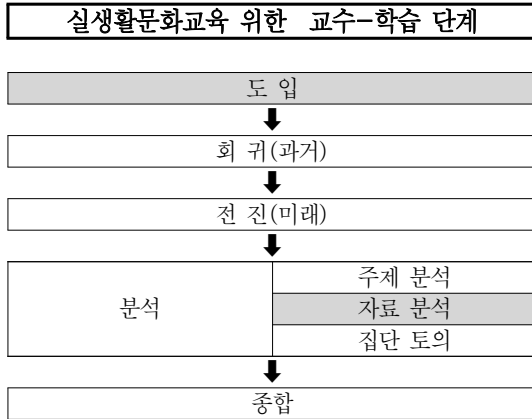
〈그림 2〉 쿠레레 방법의 교수-학습 원리와 전략

3. 한국의 실생활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

1) 교수-학습 단계

앞 장에서 소개한 Pinar와 정성아(2006)가 제시한 쿠레레 방법의 교수-학습 단계를 기본 틀로 하여 한국어 중·고급학습자들에게 한국의 실생활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쿠레레 방법의 교수-학습 단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

1) <그림3>과 <그림4>, <표1>에서 Pinar(1975)와 정성아(2006)의 제안과 달리 이 논문에서 수정된 부분은 음영으로 처리하여 제시한다.



〈그림 3〉 실생활문화교육 위한 교수-학습 단계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국의 실생활문화교육을 위한 쿠레레 방법의 교수-학습 과정은 <그림1>의 교수-학습 단계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는 회귀의 전 단계에 도입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할 내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해주는 단계이다. 즉,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단계이다. 주제와 관련된 학습자의 기존 스키마는 새로운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자가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스키마를 갖지 못하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거나 회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강록&임명옥 2009; 이삼형 1995; 이수미 2009). 학습 내용과 관련된 예를 들려주거나 학습 내용과 관련된 교사의 경험을 들려줌으로써 배경 지식을 활성화 시킨다. 이 연구는 외국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쿠레레 방법의 수업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입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학습자들은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 한 문화적 경험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쿠레레 방법의 교수-학습 과정의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교수-학습 전략은 ‘자서전적 글쓰기’이다. 하지만 학습자가 글쓰기를 특별히 어려워 할 경우나 수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 ‘개인적 경험 말하기’ 전략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수-학습 전략

은 ‘스키마 활용과 배경지식 제공’과 ‘개인적 경험 말하기’가 추가된 아래에 있는 일곱 가지가 된다.



〈그림 4〉 실생활문화교육 위한 교수-학습 전략

둘째는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분석의 단계가 주제 분석, 자료 분석, 집단 토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텍스트 분석을 자료 분석으로 바꾼 것이다.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를 통한 새로운 교육적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쿠레레 방법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실생활문화를 외국인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한국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화나 드라마, 만화, 광고, 뉴스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실생활문화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텍스트 대신 자료라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2) 단계별 학습 활동 내용

<그림 3>에 제시한 교수-학습의 과정에 따라 단계별 학습 활동 내용과 각

단계에서 적용해야 할 교수-학습의 원리와 전략을 이 차시로 나누어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2)

〈표 1〉 실생활문화 교육을 위한 쿠레레 방법의 단계별 학습 활동

단 계	학습 활동	교수-학습 원리	교수-학습 전략	차시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 - 학습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 설명한다. - 학습 내용과 관련된 교사의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하면 좋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성의 원리 - 학습공동체의 원리 (교사-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 교수전략 - 스키마 활용과 배경지식 제공 	1/2
회 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연상을 통해서 자기를 회상하고 기억을 확장한다. - 과거를 회상하여 서술한다. -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성의 원리 - 자기 주도적 학습의 원리 - 학습공동체의 원리 (교사-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서전적 글쓰기(개인적 경험 말하기) - 현상학적 질문하기 - 개별화 교수전략 	
전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연상을 통해서 가능한 미래를 상상해 본다. - 미래를 상상하여 서술한다. -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 자신의 지적 관심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지적 관심과 개인적 삶의 관련성을 찾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성의 원리 - 자기 주도적 학습의 원리 - 학습공동체의 원리 (교사-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서전적 글쓰기(개인적 경험 말하기) - 현상학적 질문하기 - 개별화 교수전략 	
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귀와 전진에서 서술한 것을 다시 읽는다. - 주제를 찾는다. - 현재를 과거와 연결, 미래와 연결 지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 살아있는 경험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성의 원리 - 이해의 원리 - 자기 주도적 학습의 원리 - 학습공동체의 원리 (교사-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서전적 글쓰기(개인적 경험 말하기) - 현상학적 질문하기 - 해석학적 읽기 - 개별화 교수전략 	

2) 정성아(2006)가 제시한 도덕과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을 본 연구의 학습 대상자와 학습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학습한다. - 제시된 자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성의 원리 - 이해의 원리 - 자기 주도적 학습의 원리 - 학습공동체의 원리 (교사-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학적 질문하기 - 해석학적 읽기 (해석학적 자료 보기) - 개별화 교수전략 	2/2
	집단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귀와 전진, 분석의 과정에서 생각하고 기술했던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후, 느낀 점이나 변화된 점을 기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성의 원리 - 이해의 원리 - 학습공동체의 원리 (학습자-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학적 질문하기 - 집단 토의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교육적 경험을 개념화하고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구성한다. -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교육적 경험이 갖는 의미를 종합한다. -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서 새롭게 발견된 모습이나 변화를 찾고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기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성의 원리 - 지식 구성의 원리 - 이해의 원리 - 자기 주도적 학습의 원리 - 학습공동체의 원리 (교사-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서전적 글쓰기(개인적 경험 말하기) - 현상학적 질문하기 - 개별화 교수 전략 		

위에 제시한 학습 활동은 교사의 재량에 따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습할 내용과 학습 환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료 분석과 집단 토의 시간을 확장할 수도 있고, 종합 시간을 축소할 수도 있다.³⁾

4. 쿠레레 방법을 활용한 한국 실생활문화 교육의 실제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안한 쿠레레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의 실생활문화

3)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Pinar는 쿠레레 방법의 단계를 제시하였을 뿐 쿠레레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쿠레레를 활용한 수업 구성법이나 수업 운영방법에 관하여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성아(2006)는 쿠레레 방법이 가지는 기본적인 교육적 의의를 충분히 함축하는 경우에는 단계를 통합하거나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를 교육하기 위한 단계별 학습 활동을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쿠레레를 이용한 문화교육은 학습자들에게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실생활문화와 관계가 깊은 ‘쓰레기 배출 방법’을 주제로 선정하여 수업을 구성하였다. 또한 확장 자료로는 『살아있는 한국어 4』의 5과인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다’ 중의 읽기 부분과 ‘쓰레기 배출 방법’과 관련된 뉴스의 동영상과 포스터를 함께 사용하였다.

1. 수업목표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알며, 실제 생활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을 배우고, 쓰레기 종량제를 학습자 스스로의 의미로 재개념화 한다.

2. 수업내용

쓰레기 배출 방법,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3. 수업개요

차시	교시	수업 내용	시간	준비물
1	1교시	도입	20분	
		회귀	30분	
	2교시	전진	30분	
		주제 분석	20분	
2	3교시	자료 분석	30분	확장 자료
		집단 토의	40~50분	
	4교시	종합	20~30분	

1차시

【도입】

① 학습 주제가 실생활문화인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는 것을 학습자에게 이야기한다.

(교) ○○씨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요?

(학)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그냥 버리면 돼요.

- (교) □□ 씨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넣어 그냥 버려요?
 (학) 아니요. 음식물과 종이, 비닐로 나누어 버려야 해요.
 (교) 나라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 알아요?

② 학습주제와 관련된 교사의 경험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학습자의 경험을 생각해 내도록 유도한다.

→ 이때 교사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예로 들려준다.

<교사경험의 예> 저희 집에서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요. 재활용을 위해서 종이는 종이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모아서 버려요.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따로 버려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해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귀】

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특별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다. 앞에서 제시한 교사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다.

(교)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나요?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해요. 과거에 여러분은 쓰레기를 어떻게 버렸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렸어요?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버렸어요? 혹시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나요?
 → 학습자의 경험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질문을 한다.

② ①의 개인적 경험을 공책에 써 보도록 지도한다.
 → 글쓰기를 할 때는 분량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쓰도록 지도한다.

【전진】

① 학습자들에게 미래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상해보도록 한다. 미래에 대한 상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한다.

(교) 미래에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쓰레기를 어떻게 버렸으면 좋겠어요?

② ①에서 상상한 미래의 모습을 공책에 써 보도록 지도한다.
 →글쓰기를 할 때 분량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쓰도록 지도한다.

【주제 분석】

① 회귀와 전진 단계에서 쓴 글을 다시 읽어 보도록 한다. 글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바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해 준다.

② ①을 통하여 자신이 찾은 주제에 관해 글을 써보도록 지도한다.
→ 회귀와 전진 단계에서 쓴 글을 요약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2차시

[쓰레기 배출 방법]

한국에서 살려면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고 돈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버리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이는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된 제도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려면 먼저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야한다. 쓰레기봉투는 5L, 10L, 20L, 50L, 100L 용이 있다. 여기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면 된다. 따라서 쓰레기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으면 처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쓰레기봉투를 절약하려면 종이나 병, 비닐,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등은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이러한 분리 배출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릴 수 있다. 1995년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을 반 이하로 줄이는 효과를 낳았다.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는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다. 농촌까지도 쓰레기 종량제가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분석】

① 위에 있는 ‘쓰레기 배출 방법’을 읽어 보도록 한다. 읽은 후 한국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자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② 확장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시해준다. 자료를 보며 학습자의 경험과 의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확장자료 1> 『살아있는 한국어 4』(계명대학교 한국어학당)

[5과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다 中 읽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음식을 많이 버리는 편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양의 약 24%나 된다. 우리가 하루 동안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계산하면 약 8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점차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환경오염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강물을 오염시키고 생명을 죽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여 환경도 보호하고 쓰레기의 양도 줄일 수 있을까? 요즘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다.

첫째, 식품은 꼭 필요한 것만 산다. 보관 중인 식품 재료의 종류와 양을 미리 확인해서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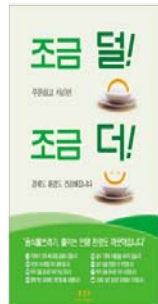
둘째, 요리할 때는 적당한 크기의 냄비나 그릇을 사용한다. 반찬 수와 양을 줄여 음식이 남지 않도록 한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을 없애고 버리도록 한다. 과일과 야채 쓰레기는 말린 후 버리고 다 쓴 기름을 버릴 때는 쓰고 난 휴지로 닦아 버린다.

이처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다. 우리 모두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확장자료 2> 관련 동영상과 포스터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1469552>의 뉴스 동영상



- (교) 어떤 내용이에요?
- (학)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 (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학) 식품은 필요한 것만 사고 음식의 수와 양을 줄여서 남기지 말아야 해요.
- (교) 여러분은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 확장 자료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집단 토의】

- ①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자의 나라와 한국과의 공통점 또는 다른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게 한다.
→ 교사는 문화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 ② 지금까지 공부한 ‘쓰레기 배출 방법’과 확장 자료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학습자의 경험을 들어보게 한다.

【종합】

- 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대하여 각자 정리해 보도록 한다.
- ②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을 자신만의 의미로 개념화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간략하게 그 의미를 글로 써 보도록 한다.
- ③ ②에서 쓴 글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쿠레레 방법을 활용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실생활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살펴보았다. 쿠레레 방법은 학습자의 경험이 주가 되므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고, 실생활문화에 대해 습득한 지식을 학습자의 삶과 연계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학습자가 경험한 모국문화와 한국문화를 비교해 봄으로써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문화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쿠레레 방법은 실생활문화를 교육하기에 적합하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수가 급증하고, 무엇보다도 여성결혼이민자와 같이 한국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학습자들이 많은 한국 언어 문화 교육의 현장을 고려해 볼 때 “지식”과 “삶”을 연계하는 쿠레레 방법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데 그 효용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수업 방안을 실제로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효과를 검증하고, 참가한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담은 수정된 수업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에 관하여는 다음 연구에서 하기로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억환. 「교육과정 재개념화로서 Currere 이론의 전개(1973-1993) 및 비판」. 『교육과정연구』, 13: 159-174. 1995.
- 김영찬·허창수. 「생애사 텍스트로서의 교육과정연구」. 『교육과정연구』, 22-4: 49-81. 2004.
- 박순경. 「자기주도성의 교육과정 이론」. 『교육과정연구』, 19-1: 159-173. 2001.
- 이강록·임명옥. 「한국어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학작품 읽기 -중국인 학습자의 스키마 활용을 통한 문학작품 읽기」. 『비교한국학』, 17-1: 463-496. 2009.
- 이삼형. 「스키마 이론과 읽기 지도」. 『한양어문』, 13: 1037-1055. 1995
- 이수미. 「한국어 읽기 텍스트 구성 원리 연구」. 『어문연구』, 37-2: 423-446. 2009.
- 이훈정. 「Pinar의 쿠레레(Currere) 교육과정 탐색」. 『교육과정연구』, 14-1: 64-93. 2002.
- 정성아·김대현. 「도덕과 수업에서의 쿠레레 방법의 적용」. 『도덕교육연구』, 18-2: 239-273. 2007.
- 정성아. 「쿠레레(Currere) 방법의 도덕과 수업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6.
- 최권진. 「쿠레레(Currere) 방법을 적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한국언어문화학』, 5-1:

113-134. 2008.

- Doerr, M. N. "A High School Ecology Curriculum Employing Currere: A Critical Postmodern Approach to Pedagogy".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College of Education. Doctor of Philosophy. 2002.
- Grumet, M. R. "Existential and phenomenological foundation of Currere: Self-Report in Curriculum Inquiry". I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1975.
- Pinar, W. "Currere: Toward Reconceptualization". In J. Jelinek (Ed.), *Basic problem in modern education*. Tempe, AZ: Arizon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147-171. 1974.
- Pinar, W.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김영천 역). 서울: 문음사(원서출판 2004). 2008.
- Pinar, W. "The Method of Currere". In W. Pinar *Autobiography, politics and sexuality: Essays in curriculum theory 1972-1992*: 19-27. New York: Perter Lang. 1975.

계명대학교한국어학당. 『살아있는 한국어 4』. 2008.

박경수.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문화』. 랭지플러스. 2010.

순천향대학교한국어교육원. 『문화로 배우는 한국어 1, 2』. 보고서. 2008

이선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 문화』. 한국문화사. 2007.

전미순. 『문화 속 한국어 1, 2』. 랭지플러스. 2008.

조향록. 『외국인을 위한 한국 사회와 문화』. 소통. 2008.

❖ ABSTRACT

Teaching Korean Living through the Method of Currere

Chung Ho-Jin · Park Sung-Sil

This paper aims to propose teaching plans based on individual learner's experience and from a cross-cultural viewpoint by applying Currere as a method of Korean life-culture education. Current Korean culture education programs are not systematic, and are being executed without differentiation from language education. Thus, this study proposes Korean life-culture teaching plans based on the method of Currere. We suggested Currere teaching-learning stages and strategies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by adapting Pinar's and Jeong Seong-a's method of Currere. The Currere teaching-learning stages consisted of introduction, regression, progression, theme analysis, data analysis, group discussion, and integration. Although the method of Currere is implemented through autobiographic writing, this study added the strategies of 'personal experience telling' and 'schema utilization and background knowledge provision'. In order to enhance the applicability of Currere to Korean life-culture education, we suggested teaching plans for the theme of "How to dispose rubbish" as an example. We suggested detailed teaching plans that teachers can apply in the actual classroom. We expect that these teaching plans may be applied to actual classes so that Korean culture education may not be limited to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but be linked to their real life.

Key Words

쿠레레, 실생활문화, 문화교육, 개인적 경험, 학습자 중심 교수법

Currere, Korean life-culture, Culture education, personal experience,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

논문접수일 : 2010. 2. 15.

심사완료일 : 2010. 4. 10.

게재확정일 : 2010. 4. 15.